

도서관탐방

## 교내 최고의 인기공간이자 교육의 중심시설로 자리잡은 이화여대병설멀티미디어고등학교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래 매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분야별로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오고 있다. 2004년에도 약 40여개의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였으며, 2004년 12월 3일(금) 제주도에서 개최된 '2004 학교도서관대회'에서는 8개 학교의 우수사례 발표 시간도 마련되었다. <도서관문화> 도서관탐방팀에서는 8개 학교 중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서교사 근무 도서관을 발견하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 편집자 주

###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 특성화로 선정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경기도 구리시를 가자면 대로변에 금란교회라는 약간(?) 큰 건물이 보인다. 교회 바로 오른쪽 조그마한 일방통행 골목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저절로 옛 추억에 잠긴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문방구와 떡볶이집 등 크고 작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데 삼삼오오 걸어나오는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꿈도 많고 고민도 많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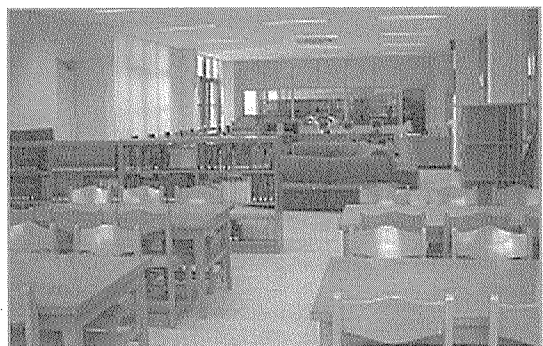
교문을 통과하자니 2005년부터 교명이 영란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이화여대병설멀티미디어고등학교(교장 이영옥)로 변경되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특성화고(인문계 고등학교의 특목고에 해당)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의 큰 펼침막이 눈에 들어온다.

### 대대적인 리모델링 추진, 교내 최고 인기 공간으로 탈바꿈

이화여대병설멀티미디어고등학교도서관(이하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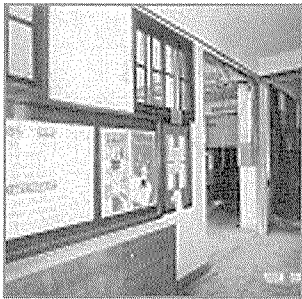


<리모델링 후 도서관 입구>



<내부 전경>

의 개관년도는 36년 전인 1969년이다. 학교 설립 연도와 같다. 개교 당시부터 도서관이 있었



(리모델링 전 도서관 입구)

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개관이후 지금까지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도서관에 대한 학교장의 지원도 꾸준했다.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선 사서교사는 1981년 첫 부임하였는데 지금까지 3차례 도서관 이사를 했다. 1991년에는 중학교 교실에서 고등학교 건물 2층(30평)으로, 1993년에는 고등학교 건물 4층(50평)으로 이사했으며, 2003년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현재 위치하는 건물 3층(78평)으로 확장 이전하며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2003년 3월-6월, 교육부 지원 포함 약 1억원 투자)하였다. 이때 고등학교도서관에 합쳐져 운영되던 중학교도서관은 중학교 건물로 이전하였다.



(도서관은 '96년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산화를 완료하였는데 이는 학교도서관 분야에서 거의 선두주자격이었으며, '03년 9월 DLSII 프로그램으로 교체하였다. 사회과와 연계한 도서관활용 수업 시 도서목록 검색, 독후감 제출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없이 졸업은 불가능하다)

깔끔하게 새 단장을 마친 현재의 도서관은 교실 3.3칸의 규모로 8천5백여권의 장서와 9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4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면서 대대적으로 장서점검을 한 탓에 장서 수만 늘려주는 케케묵은 1980년대 책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도서 라벨작업을 새로 했는데 인근 동대문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컴퓨터·홈서버·스캐너 등 각종 기자재에 있어서도 교내 시설 중 최첨단을 달린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가. 폭신한 소파에 성능 좋은 냉난방기, 심심풀이 만화에서 수준 높은 교양도서까지 골고루 챙겨주는 사서교사가 완비된 도서관은 순식간에 교내 최고의 인기시설로 자리잡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등 도서관은 늘 붐빈다. 19인용 소파에 30명까지 앉아 있는 날도 있다고 하니 장난이 아니다. 전학년이 30학급 987명인데 1일 도서관 이용 학생은 300여명, 1일 대출 책 수는 100여책에 달한다. 그렇다고 도서관이 순전히 학생들에게만 이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방문팀이 머물렀던 그 순간에도 교사들이 수시로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와 책을 빌리고 있었고, 교장·교감 선생님도 부족한 것이 있나 없나 살피러 다녀가셨다.

###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활용 수업 활성화로 학교교육 중심 시설로 자리잡아



(도서관 활용 사회과 수업 모습. 좌석수 38석)

이번 2004 학교도서관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학교도서관 활용” 부문으로, 학교는 고1 학생 전체 사회과 과목에 도서관과 협력하여 주 1시간씩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 관련 참고도서 조회, 조별 토론, 자료 제작, 수행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1년 간 시범으로 운영한 협력수업 방식은 이렇다. 먼저 사회과 교사와 협력하여 탐구도서 17종을 선정한다. 사서교사는 이 목록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고 90여권의 책을 구비해 놓는다. 그러면 학생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된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수업 중에 조별로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행평가를 위한 독후감 제출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사서교사는 접수된 독후감을 별도로 출력하여 교사에게 전달)한다. 물론 사서교사는 수업시작 전에 자료 검색 방법, 참고도서 활용법,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법 등에 대한 정보 교육을 실시한다.

그 결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쾌적한 수업환경으로 집중력이 향상되고 PC, 참고도서, 복사, 스캐너, 프린터 사용 등이 윈스톱으로 서비스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사회교과와 관련된 여러 도서를 읽을 수 있어 독서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관련 자료 조사, 권장도서 선정, 수행평가, 수업관련 기자재 관리, 인터넷 자료 검색지도 등에서 사서교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상당 기간 학교도서관들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시설 면에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시설이 뒷받침되고 나니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시설로 만들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선생님과 의논하여 지난 1년 간 협력수업을 진행해봤는데 정말 정신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도 도서관의 기능을 교




(사서교사의 부족한 일손은 2명의 도서관장학생들과 18명의 문헌정보반 학생들이 돕는다.)

사와 학생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 되어 기쁩습니다.

앞으로 협력수업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물론 입시에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정규시간 중에 독서교육 수업을 갖기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독서평가도 입시에 반영되는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을 꼭 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교내에서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친구들과 수도도 떨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정서를 위한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서교사의 말에서 학교도서관의 미래를 본다.

황무지 같은 서고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막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학교도서관들. 우리의 미래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면 학교도서관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학교도서관이 교내 종합정보센터, 교수학습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독서교육 및 정서 함양의 중심공간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05년 새해를 시작해 본다. 

[글 : 박경아 자료 · 미디어탐방, 사진 : 이화여대병실미디어 고등학교도서관]